

전남 아파트시세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1)' section.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2)'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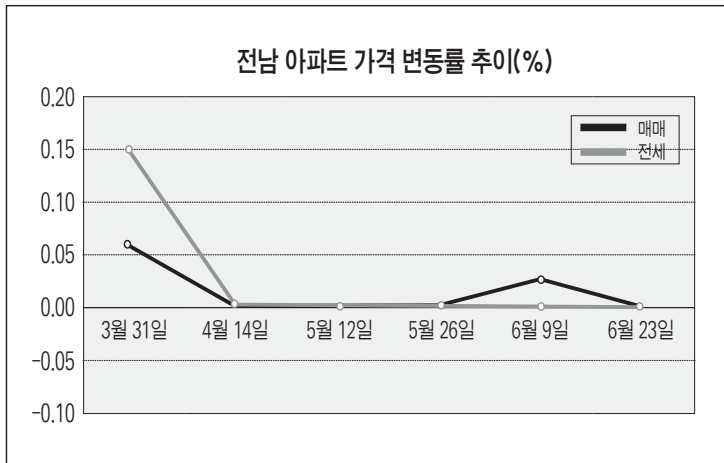
전반적 거래부진속 매매·전세 포함세

최근 2주간 전남지역 아파트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부진속에서 포함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25일 부동산정보제공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남 아파트시장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을뿐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관망세가 맞물리면서 포함세를 이어갔다.

목포시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 이후 꾸준한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2주간 포함세를 유지하면서 인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도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동반 상승세를 기대했으나 시세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개별단지별로는 목포시 용해동 호반리센스빌 35평형의 매매와 전세가 각각 1억1천200만~1억1천800만원, 9천~1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연향동 더조은 단지 34



평형의 매매는 1억3천600만원, 40평형은 1억3천2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전세시장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계절상 비수기까지 겹쳐 큰 변동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순천시 연향동의 블루시안(6월), 대주파크빌(7월), 여수시 안산동 우미노스빌(7월)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7월 이후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경 차장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였다. 매수 세력까지 사라지면서 거래 부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변동도 크지 않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한동안 이같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3)' section.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4)' section.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5)' section.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6)' section.

Table with columns: 지역, 아파트명, 평형, 매매가, 전세가, 문의처. Includes '전남 (067)' section.

시세는 부동산 114가 회원 증가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다른 증가업소가 제시하는 시세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전주 가격보다 올랐을(내렸을) 경우

부동산 114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www.R114.co.kr, 070-7011-7114, 호남지사 (www.honamr114.co.kr)